

광주 대기업 협력업체 75% “납품단가 불만”

인건비·원재료 상승분 반영해야...69% “경영상황 나쁘다” 중기 ‘1분기 광주 협력업체 경영애로 조사’

광주·전남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75%가 납품단가에 불만을 표시했다. 납품단가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적절한 납품단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원재료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내놓은 ‘2019년 1분기 광주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경영애로 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68.5%는 ‘회사 경영상황이 나쁘다’고 응답했다. ‘동일하다’는 28.5%, ‘좋다’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이 조사는 지역경제의 비중이 큰 대기업 협력업체들의 경영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130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협력업체들은 경영 애로(복수응답) 요인으로 ‘국내수요 감소’(50.6%), ‘인건비 상승’(26.8%), ‘자금조달 곤란’(8.3%), ‘업체간 과당경쟁’(4.2%) 등을 들었다.

또 이들 업체는 원사업자 간 거래 및 동반성장 여건에 대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49.3%로 가장 많았고, ‘동일하다’ 47.7%, ‘좋다’ 3.1%로 응답했다. 나쁘다

는 응답의 주원인은 ‘납품물량 감소’(48.6%), ‘낮은 납품단가’(41.8%)를 꼽았다.

특히, 납품단가 적정성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74.6%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들 업체는 적절한 납품단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상승 등 인건비’(63.1%), ‘원재료 등 재료비 변동분’(33.8%)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반성장 여건 개선을 위해 대기업에 바라는 사항으로는 ‘적정한 납품단가 반영’(39.0%), ‘납품물량 보장’(36.2%), ‘중소기업을 협력 파트너로 인식’(16.7%), ‘공정거래 준수’(6.9%) 등을 꼽았다.

정부 대책으로는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지원’(24.4%), ‘지역산업 다변화 및 신규

대기업 유치’(22.9%),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강화’(22.5%),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 및 인식개선’(20.2%), ‘대기업 해외이전 방지’(7.8%) 등을 요구했다.

지자체에 바라는 중소기업 지원책으로는 자금리 정책자금 확대, 중소기업 상품 판로 개척 지원, 규제 완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장운성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인식변화를 통한 공정한 인건분배와 확산이 필요하다”며 “적정한 납품단가가 보장될 때 중소기업도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혁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45.89 (-2.74)	↑ 금리(국고채 3년)	1.78 (+0.01)
↑ 코스닥	766.89 (+1.87)	↓ 환율(USD)	1134.80 (-0.90)



하늘로 이어지는 스카이프 ‘대리수 어썸브릿지’

봉선주월 스마트 홈 음성 인식 힐링 라이프 즐길 수 있는 아파트

광주 최초로 하늘로 이어지는 스카이프 아파트가 선보인다. 봉선주월 대리수 어썸브릿지다.

17일 대리수어썸브릿지 건설에 따르면 봉선주월 대리수 어썸브릿지는 랜드마크 스카이프 라이트 브리지와 스카이프 특화 설계를 적용한 아파트로 어느 누구의 간섭 없이 넓게 펼쳐진 조망을 바라보며 힐링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아파트다.

특히, 이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뉴딜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광주시 남구 백운광장 일원이어서 백운광장 뉴딜사업의 최대 수혜단지라 될 전망이다. 국토부 백운광장 뉴딜사업은 총 879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3년까지 젊은 층 유입을 위한 청년 특화 사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다.

이 아파트는 입주민을 위한 스마트한 홈 IOT 음성인식 기술인 KT의 AI플랫폼 ‘가가지니’ 설치되고, 사회문제도 대

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비해 집집마다 현관 천장에 에어사위기와 신발장의 진공청소 톨렛이 설치돼 있다. 집안에서는 공기청정 전열교환 환기시스템이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해준다. 이 시스템은 실내와 실외공기를 열교환해 실내 열 손실을 최소화한다.

광주·전남 최초로 와이비엠 영어 원어민 무상교육을 진행한다. 유치원·초등학교 자녀는 물론 모든 입주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입주 조건은 광주 최고다. 봉선 생활권에 위치한 교육·교통·생활인프라 등이 우수한 것이 강점이다. 또 1.5km 반경 내 장산초·삼육초·삼육중·동성중·주월중·대성여중·대성여고·대광여고·동성고·삼육고 등이 위치해 최고 명문학교를 자랑한다.

광주공원과 사직공원·월산근린공원·유안근린공원 등이 근접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롯데마트·아울렛·월드컵경기장 등 주민 편의시설은 물론 남구청과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광주기동병원 등 관공사·대형병원도 가깝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국세청, 혁신성장 기업 세정지원 설명회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왼쪽 네번째)이 혁신성장 세정지원 간담회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형환)은 17일 오후 정부광주지방법동청사 3층 세미나실에서 광주(서구·광산구)지역 혁신성장 기업 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설명회를 가졌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경제정책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 하기 위해 다양한 세정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기업현장의 애로·건의 사항을 들었다. 또한 설명회장에 재능기부 자원봉사자인 나눔세무사 2명과 함께 무료 ‘세무상담코너’를 마련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등 특례,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등 다양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형환 청장은 “현장중심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경제동력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 기간 중 느낀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 ‘기아챌린지 콘서트’ 발대식...1억4000만원 후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2014년부터 6억5000만원 기탁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17일 ‘2019 기아챌린지 콘서트’ 발대식을 하고, 지역 아동·청소년 후원에 본격 나섰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이날 행사에 맞춰 문화예술교육 기금 6000만원, 드림 토크 콘서트 8000만원 등 모두 1억4000만원의 후원금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2019 기아챌린지 콘서트’는 문화예술 교육과 드림토크콘서트로 구성된 기아차 광주공장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문화예술교육은 취약계층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고 공개 오디션을 거쳐 단원을 선발해 운영한다. 총 100명 규모로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3시간씩 춤·노래·연기 등 문화예술교육을 한다.

어린이들은 5월부터 9월까지 기아타이거즈 사전 공연, 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재단 재능 발표회 등 지역 문화행사에서 실력을 발휘한다. 11월에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탄생시킨 어린이 창작 뮤지컬을 가족·시민에게 선보인다.

드림 토크콘서트는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을 초청해 청소년들에게 진로 선택의 폭

을 확장해줄 멘토 강연과 질의 응답 형식으로 총 5회 진행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아챌린지 콘서트는 지역사회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자아 존중감을 길러주고, 꿈을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더 많은 아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2014년부터 6억4500만원을 후원, 찾아가는 문화공연·문화예술교육 등을 통해 외계종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아동센터 3곳 공기청정기 기증

한전 광주전남본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임철원)는 본부 2층 회의실에서 3개 지역아동센터(모해, 브니엘, 지원)에 공기청정기를 기증하는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나눔행사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철원 한전 광주전남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아동센터와 더욱 교류 협력하도록 할 것이며, 우리 본부는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매일 전 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기부해 조성한 러브펀드와 회사에서 지원하는 매칭그랜트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희망·사랑을 나누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부모님 통장으로
매월 농지연금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힘든 농사일을 계속 해오신 우리 부모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으로 부모님의 근심을 덜어주세요.

농지연금이란? fb 농지은행 KR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 제도로서, 경작이나 임대로 인한 추가소득도 가능하고 부부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65세 이상 /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경제산림 · 복지산림 · 생태산림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관리하기 힘든 산(임야)을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산림청에서 산을 매수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및 신고전화
063-620-4630~3